

신세대 가족의 가정생활에 대한 의식과 태도 연구

Recognitions and Attitudes of the New Generation Family on the Family Life

정 영 숙 · 김 향 숙* · 권 수 애**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 식품영양학과* · 가정관리학과**

Chong, Young Sook · Kim, Hyang Sook* · Kweon, Soo Ae**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ood &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recognitions and attitudes of new generation family on the family life, and to help the family members of the new generation family to be able to adapt to the future family and society with the right senses and attitudes on the family life.

Three-hundred married men and women who were less than 35 years old, and who continued marriage for less than five years were se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 1) Types of family composition was mostly nuclear family, and got help from their parents in managing household work.
- 2) Most new generation family was more likely to share equal roles and rights in household affairs, decision making and ownership of real properties.
- 3) Most new generation family considered the personality and the sense of value a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s which their spouse must have. And they were affirmative to wives' employment.
- 4) Most new generation family wanted 2 children. And preferred showed that they did not care much about son preference.
- 5) Most new generation family showed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aking care of their old parents. However, they showed independency of financial planning for later years.
- 6) In many ways of life, their recognitions and attitudes were progressive but their were conservative in practical life as the older generations did.

I. 서론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와 가치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지속 되어 왔으나,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사회, 정치,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무수한 변동

과 함께 매우 크고 빠른 변화를 가져 왔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기존 사회제도와 고유한 문화, 우리가정에 대한 가치의식도 많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가정에 대한 전통적 의식과 근대적 의식이 공존하는 혼란된 상태이며 경우에 따라서 전통적 태도와, 또는 근대

적 태도가 혼합되어 표출되고 있다.

윗세대 부모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준다 면 이러한 문제해결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현대가정의 형태와 내용은 기성세대가 경험한 가정의 경우와 너무도 차이가 나게 달라져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신세대를 이해하기 힘들고 도와주기도 어렵게 되었고, 많은 젊은 부부들은 그들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고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은 신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가정문화 전달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각기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신세대와 기성세대를 나누어 놓았고, 양세대는 서로 다른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신세대가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가족간의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가족문제의 내용들은 세대간의 갈등, 가족해체의 급증, 여성과 남성의 역할문제, 가정자원 관리문제, 자녀문제, 노인문제 등이다. 이러한 가족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중의 대부분은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가족 가치관이 다른데로부터 기인한다.

혈연의식과 연계된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현대에 와서도 가족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신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서로 다른 경험과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족 가치관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신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의식과 태도를 조사·분석하여, 그들의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꾸려나가기 위해 현재와 미래에 부딪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신세대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생활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특성을 찾아내어 신세대 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이 미래의 가정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올바른 가족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정의 신·구세대간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안과 신세대 가정이 미래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세대 용어의 개념

세대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령의 차이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들은 연령층에 따라 각기 다른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경험을 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세대간에 가치관이나 의식구조,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세대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동시에 사회학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세대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크게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모세대 혹은 자녀세대와 같이 가족관계의 차원에서 구분하는 경우, 둘째 인구학적인 동시 출생집단(cohort)을 의미하는 경우, 셋째 학생세대나 노인세대처럼 생애주기의 일정단계를 지칭하는 경우, 넷째 6·25세대, 4·19세대 등과 같이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신세대라는 용어는 최근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그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①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생애주기 모형(life-cycle model), ② 사회적 상황 및 공통경험의 공유를 증시하는 경험모형(experimental model)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생애주기와 사회적 경험이 비교적 조응한다는 견지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대체로 35세 이하의 연령층을 신세대로 구분하는 점에서 학자들간에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신세대란 ① 전쟁후에 출생하였으며, ② 어렸을 때부터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려왔으며, ③ 출산을 저하와 핵가족화로 인해 소규모 가족에서 사회화되었으며, ④ 정치·경제·문화 각 분야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세대로 볼 수 있다(권미화, 1994). 이러한 신세대가 성장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유년기를 1960년대에 보냈고, 청소년기는 공업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70년대에 보냈다. 공업

화와 함께 도시화, 직업분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수반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의하여 신세대는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었고, 경제제일주의, 물량주의적 사고, 강한 성취욕구를 갖게 되었다(조은정, 1994).

우리나라에서 신세대는 아직 계이름을 갖지 못하고 있고 정확한 정의도 없으며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세대", "X세대" 등으로 불리는 젊은층의 문화가 언론과 광고에 과대포장되어 기업의 상품전략에 이용당한 결과로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한국일보, 1994. 3. 26). 광고문 안에 등장한 X세대는 최근 미국의 마케팅 종사자들이 베이비붐 세대를 잇는 새로운 소비집단을 가리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18~29세까지인 X세대의 특징은 자기중심주의, 기존가치관에 대한 부정, 전문가에 대한 맹종, 감각지상주의, 패션성, 실용적 소비패턴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신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의 비교나 재정립과정이 생략된 채 통용되고 있는데, 신세대라는 용어는 1987년 이후 서구·왜색 문화, 개인주의, 쾌락주의 등을 공유하며 나타난 20대 초·중반의 동기집단으로 정의되기도 하고(한국일보, 1994. 3. 26), 외모나 나이와 무관하게 삶의 방식에서 정립된 개념으로 보기도 하며(한국섬유신문, 1994. 6. 6), 90년대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중, 문화적 소비욕구가 새롭게 분출되어 기성세대와 차별화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욕구와 하층계급으로부터 자신의 문화소비를 차별화하고자 하는 중산계급의 욕구가 어우러져 만든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한국일보, 1994. 3. 26).

2. 신세대의 특징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신세대 문화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독특한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세대는 무한 경쟁사회, 국제화·세계화 사회,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에 가장 접근해 있다. 신세대들이 보여주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중요한 일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사회

각 부분에서 신세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최근의 문헌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신세대가 기성세대와 다른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점이다. 둘째, 신세대는 자기일에 대한 높은 성취감과 철저한 프로의식을 가지고 자기일에 충실한다는 점이다. 셋째, 신세대는 사회적 명성과 부모보다는 가족의 행복과 개인의 삶을 더 소중하게 하므로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네째, 신세대는 비교적 개방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부모세대로부터의 영향으로 인한 유교적 전통가치와의 혼돈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신세대들은 결혼이 자기자신에게 가져다주는 변화의 손익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신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제멋대로"하는 신세대가 결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또 다른 개성과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한겨레신문, 1993.11.19).

신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경험 즉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한 시대로, 경제적 잉여를 생산하기 시작한 시대에 태어나 이것을 향유하며 성장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90년대의 신세대론은 우리 사회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단계에서 벗어나 자유와 풍요로운 삶을 희구하는 세대로 접어들었다는 시대양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정현숙, 1994). 독특한 자기의 스타일을 표현하며 느낌과 감성을 중시하는 영상세대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바람직한 모습이 신세대의 특징이며, 신세대 문화는 그것을 표현하는 생활양식인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은 결혼년수가 5년 이내이면서 아내의 연령

이 35세 미만인 신세대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각각 임의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가정에서 추출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청주에 총 920부를 배부해서 612부를 회수(회수율 66.5%)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는데, 남편 305명, 아내 307명으로 모두 612명이었다.

연구기간은 1994년 4월부터 1995년 3월까지이며, 자료수집에 있어서 예비조사는 1994년 10월에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1994년 11월부터 1995년 1월까지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 및 자료처리

설문지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이 16문항, 가정의 특성에 관한 문항이 8문항, 가정생활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가정자원관리에 관한 문항이 13문항, 신세대 가정의 가족간의 관계속에서 부부에 관한 문항이 8문항, 자녀에 관한 문항이 5문항, 미래생활에 관한 문항이 10문항, 가정생활 및 가정행사에 관한 의식과 태도를 묻는 문항이 5문항으로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에 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특성(거주지역, 성, 연령, 직업, 학력, 가족구성 등)에 따른 차이는 교차분석을 통한 X^2 -test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남편 연령은 30-34세가 54.5%로 30대 초반이 가장 많았고, 아내 연령은 25-29세 53.1%로 20대 후반이 가장 많았다.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남편 60.5%, 아내 47.5%)이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의 학력비율이 아내보다 남편이 많았다.

성장지는 조사대상자의 절반가량이 중소도시에서 성장하였고,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청지역이 남편 49.2%, 아내 45.7%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에서 성장한 남편이

<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사항 % (N)

연령	남편		아내	
	비율	인원	비율	인원
25세미만	0.5(3)	3	25세미만	6.8(39)
25-29세	28.4(166)	166	25-29세	53.1(306)
30-34세	54.5(319)	319	30-34세	35.0(201)
35세이상	16.6(97)	97	35세	5.1(29)
계	100.0(585)	585	계	100.0(574)
학력	중졸이하	0.3(2)	중졸이하	0.2(1)
	고졸	22.4(131)	고졸	40.4(230)
	대졸	60.5(354)	대졸	47.5(271)
	대학원졸	16.8(98)	대학원졸	11.9(68)
	계	100.0(585)	계	100.0(570)
성장지	대도시	29.3(166)	대도시	33.2(184)
	중소도시	50.1(284)	중소도시	47.4(263)
	읍면이하	20.6(117)	읍면이하	19.5(108)
	계	100.0(567)	계	100.0(555)
직업	무직·학생	2.4(12)	주부·학생	53.5(268)
	단순노무직	3.8(19)	단순노무직	3.0(15)
	상업	10.4(51)	상업	2.6(13)
	사무직	72.2(355)	사무직	38.3(192)
	전문직	10.4(51)	전문직	2.6(13)
	기타	6.8(4)		
	계	100.0(492)	계	100.0(501)
월평균수입	100만원미만	26.3(142)	50만원미만	56.4(291)
	100-150만원	43.2(233)	50-100만원	24.2(125)
	150-200만원	19.4(105)	100-150만원	16.3(84)
	200만원이상	11.1(60)	150만원이상	3.1(16)
	계	100.0(540)	계	100.0(516)

20.8%, 아내는 26.8%이었으며 전라, 경기, 경상지역에서 성장한 사람이 각각 10% 내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이 72% 정도이고 아내는 학생, 주부인 경우가 53.4%이며 남편, 아내 모두 직업을 가진 경우 사무직이 가장 많았다.

월평균수입을 살펴보면, 남편은 100-150만원인 경우가 43.2%로 제일 많고 아내는 50만원 미만이 56.4%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아내의 월수입이 남편보다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내의 경우 직업이 없는 사람이 53.5%인데 비해 수입에 응답해 준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은 근로수입 외에 재산소득이 있거나 부업을 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가족상황은 표 2에 나타내었는데, 가족구성은 핵가족이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확대가족은 18.3%에 불과하였다.

가사조력자가 없는 경우가 75.3%이고, 가사조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가 80%인데 친정부모나 처부모보다 본가부모나 시부모가 조력자인 경우가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여 신세대 가정이라 해도 가사조력은 부모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옥형태는 아파트·연립주택 거주자가 약 65% 정도로 가장 많고, 전세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약 50%, 자기집을 가진 경우가 42.5%, 월세·기타가 7.6%로 나타났다.

결혼형태는 중매혼인 경우가 15.4%, 연애혼 64.7%, 절충혼이 19.9%이었고, 결혼한 지 1년 미만인 경우가 17.7%, 2년 미만인 경우가 26.5%, 4년 미만인 경우 22.6%, 5년 미만인 경우가 34.2%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가족사항 % (N)

가족사항	구분	비율 (%)	인원 (N)
가족사항	부부만으로 구성	31.0	189
	부부와 자녀로 구성	50.7	309
	부모, 부부, 자녀로 구성	18.3	111
	계	100.0	609
가사조력자	무	75.3	458
	유	24.7	150
	본가부모·시부모	57.3	86
	친정부모·차부모	22.7	34
	파출부·입주가정부	10.0	15
	기타	10.0	15
소계	100.0	150	
주거형태	아파트·연립주택	64.9	396
	상가주택·기타	6.7	41
	전세	49.9	303
월세·영구임대	월세·영구임대	4.1	25
	편사·기타	3.5	21
	계	7.6	46
연애혼	연애혼	64.7	394
	절충혼	19.9	121
	중매혼	15.4	94
결혼기간	2-4년	22.6	138
	4-5년	33.2	203
	계	100.0	611
형제수	없음	49.1	299
	1명	35.3	215
	2명	36.8	223
	3명 이상	19.0	115
계	100.0	552	

2. 가정자원관리

1) 가정생활에서의 역할분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족관계유지와 자녀교육은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지배적이었으며, 아동양육도 응답자의 63%가 부부공동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공동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생계와 가사담당이었다. 남편이 전담하거나 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계담당(59.4%정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주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아내가 전담하거나 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사와 가계관리이고, 생계와 친족관리부분은 대단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서 신체적 돌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면 자녀의 교육은 부부공동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성희, 김현(1989)의 연구에서 가계지원은 80%의 응답자가 남편이 수행한다고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생계담당은 남편이 주로 전담해야 한다는 비율이 60%로 나타나 20%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 결과로 보아 남편의 주된 일이라고 생각했던 생계담당도 부부공동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변화를 알 수 있다.

<표 3> 가정생활의 역할분담 내용 % (N)

내 용	남편 주로 또는 전담	아내 주로 또는 전담	부부공동	계
생 계 담 당	59.4(362)	2.0(12)	38.6(235)	100.0(629)
가 사 담 당	1.0(6)	66.6(404)	32.5(197)	100.0(607)
아 동 양 육	0.9(5)	36.1(210)	63.0(366)	100.0(581)
자 녀 교 육	1.4(8)	18.3(106)	80.3(464)	100.0(578)
친족관계유지	7.9(48)	8.8(53)	83.3(503)	100.0(604)
가 계 관 리	4.3(26)	53.3(323)	42.4(257)	100.0(606)

그런데 가정에서의 남녀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는데 가정에서의 일의 내용에 따라 남편이 주로 또는 전담해야 할 일과 아내가 주로 또는 전담해야 하는 일에 차이를 나타낸 것도 이렇게 가능한한 성역할에 대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표 4).

<표 4> 성별 남녀역할 차이에 대한 의견 % (N)

남녀역할 \ 성	남 편	아 내	전 체
절대적으로 차이를 둬	12.1	2.6	7.4(45)
가능한 차이를 둬	61.0	37.4	49.2(300)
차이를 두지 않음	26.9	60.0	43.4(265)
계	100.0(305)	100.0(305)	100.0(610)
	$\chi^2=74.46$		$p=0.0000$

이로써 신세대 가정이라 하더라도 여성들은 성역할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근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남성들은 아직도 성차별적인 전통적 가치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역할 태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성희·김현, 1989)이 남성보다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더 근대적임을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역할분담에 대해 아동양육, 자녀교육, 친족관계유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생계담당, 가사담당, 가계관리를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표 5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 가정생활에서의 역할분담에 영향을 준 변인

	성 종교	남편 직업	남편 월수입	남편 학력	아내 직업 유무	아내 월수입	가족 구성	가사 조력자 유무
생계담당	n.s.	n.s.	n.s.	n.s.	***	***	***	**
가사담당	***	***	***	n.s.	**	***	n.s.	n.s.
가계관리	n.s.	n.s.	n.s.	***	n.s.	n.s.	**	n.s.

** p < .01, *** p < .001, n.s. 유의하지 않음.

생계담당은 아내의 직업유무와 월수입, 가족구성, 가사조력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족구성 외에는 주로 아내와 관련된 사항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직업이 있는 경우, 아내의 월수입이 높은 경우, 핵가족인 경우, 가사조력자가 있는 경우가 생계를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사담당은 성, 남편의 종교와 직업, 아내의 학력·직업유무·직업종류,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사담당을 아내 전담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편보다는 아내들이 2배 이상이나 높았고, 남편의 종교가 불교인 사람이 가사를 아내가 주로 또는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불교신자인 사람들이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서병숙·김윤, 1983; 고정자, 1991)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이 사무직 이하인 경우, 아내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내의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내의 월수입이 작을수록, 가사를 아내가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계관리는 남편의 월수입과 아내의 월수입, 가사조력자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 의하면,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 정도는 반수 이상이 가끔한다고 하였고 자주 또는 거의 매일하는 남편은 33% 정도, 거의 안하는 남편도 15%나 되었다. 남편이 가정에서 하는 일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집안청소와 세탁의 빈도가 가장 높아 약 70% 정도의 응답율을 나타냈으며, 관공서업무, 설거지, 육아, 자녀학습지도, 식사준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노동의 수행 정도는 아내의 직업유무와 월수입, 가족구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높은 수입을 갖는 아내는 파출부를 이용하는 등 남편 이외의 가사조력자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자녀없이 부부만 있을 경우가 자녀있는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의 경우보다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 아내의 직업유·무, 월수입, 가족구성에 따른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정도 % (N)

수행정도	가사노동 수행정도	아내의 직업		아내의 월수입(만원)			가족구성			
		유	무	50 미만	50-100	100-150	150 이상	부부	핵가족	확대가족
거의 매일	7.5	11.7	3.6	4.2	14.3	14.3	6.3	12.2	4.5	8.1
자주	25.9	31.1	21.5	21.3	29.5	32.1	18.8	36.5	20.8	21.6
가끔	51.7	47.3	56.0	55.5	49.5	47.6	43.8	41.8	57.5	52.3
거의 하지 않음	14.9	9.9	18.9	19.0	6.7	6.0	31.3	9.5	17.2	1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83)	(275)	(310)	(105)	(84)	(16)	(189)	(308)	(111)
		$\chi^2=26.50$				$\chi^2=36.82$			$\chi^2=32.24$	
		$p=0.000$				$p=0.000$			$p=0.000$	

표 7은 남편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내용별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결혼년수, 남편과 아내의 연령, 남편의 성장지로 볼 수 있는데 결혼년수가 짧을 때는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를 하는 남편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가사노동이 아내의 몫으로 돌아가 차츰 기성세대

의 가정생활과 비슷한 양상으로 돌아감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결혼년수가 짧은 것으로 보아 연령 증가도 결혼년수의 증가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편의 성장지가 중소도시, 농촌일수록 가사수행비율이 낮은 것은 대도시 거주자보다 농촌 거주자가 전통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서병숙·김윤, 1983; 김명자, 1986; 박혜인, 1989; 김경신, 1990)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표 7> 남편의 가사노동내용에 영향을 준 변인

가사노동 내 용	가정 생활											
	거주 지역	남편 연령	남편 학력	남편 성장지	남편 연령	아내 학력	아내 성장지	아내 직업	아내 취업 유무	아내 취업 유무	결혼 년수	
육아	n.s.	**	n.s.	n.s.	n.s.	n.s.	n.s.	n.s.	n.s.	**	**	***
자녀학습지도	n.s.	***	n.s.	**	***	n.s.	n.s.	n.s.	n.s.	**	n.s.	***
집안청소	n.s.	n.s.	n.s.	n.s.	n.s.	n.s.	n.s.	***	**	***	n.s.	**
식사준비	n.s.	***	n.s.	**	***	n.s.	n.s.	n.s.	n.s.	***	n.s.	***
설거지	***	***	**	***	**	n.s.	n.s.	n.s.	n.s.	n.s.	n.s.	***
세탁	n.s.	n.s.	n.s.	n.s.	n.s.	n.s.	n.s.	**	***	**	**	n.s.

** p < .01, *** p < .001, n.s. 는 유의하지 않음.

2)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가정생활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본 결과, 생활비 예산편성, 의생활 소비와 선택, 식생활 소비와 선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부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가정의 장·단기계획, 자녀문제, 여가생활관리, 생활시간관리, 여가생활관리, 주요재산매매에서 부부공동 의사에 따른다는 비율이 많았다.

남편이 해야한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항목은 축의금·조의금 결정, 주요재산매매, 재산증식관리인데 이러한 부분도 부부공동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더욱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의·식·주생활의 소비와 선택, 생활비 예산편성은 대부분 아내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 나타난,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변인들을 보면, 생활비 예산편성, 주생활 소비 및 선택, 저축할 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생활

의 의사결정 내용 중, 가정의 장·단기계획과 축의금·조의금 결정, 여가생활관리는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자녀문제, 의·식생활에 관련된 소비나 선택은 결혼년수가 길어질수록 아내의 의사결정권이 확대되는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3) 부동산취득시 소유권

부동산취득시 등기부의 명의를 부부 중 누구 앞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 <표 8>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변인

의사결정 내용	거주 지역	성	남편 연령	남편 성장지	남편 직업	아내 연령	아내 학력	아내 직업	아내 취업 유무	결혼 년수
가정의 장기계획	n.s.	***	n.s.	n.s.	n.s.	n.s.	n.s.	n.s.	n.s.	n.s.
자녀문제	n.s.	n.s.	n.s.	**	n.s.	n.s.	**	n.s.	n.s.	**
의생활 소비 및 선택	n.s.	n.s.	**	n.s.	n.s.	**	n.s.	n.s.	n.s.	**
식생활 소비 및 선택	n.s.	n.s.	n.s.	n.s.	n.s.	n.s.	n.s.	n.s.	n.s.	**
주요재산매매	***	n.s.	n.s.	n.s.	n.s.	n.s.	n.s.	n.s.	n.s.	n.s.
축의금, 조의금 결정	n.s.	***	n.s.	n.s.	n.s.	n.s.	n.s.	n.s.	n.s.	n.s.
재산증식 관리	n.s.	***	n.s.	n.s.	***	n.s.	n.s.	**	**	n.s.
생활시간 관리	**	***	n.s.	**	n.s.	n.s.	n.s.	n.s.	n.s.	n.s.
여가생활 관리	n.s.	***	n.s.	n.s.	n.s.	n.s.	n.s.	n.s.	n.s.	n.s.

** p < .01, *** p < .001, n.s. 는 유의하지 않음.

문에 부동산 명의를 모두 남편 명의로 해야한다는 응답율은 12.2%에 불과하고,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는 46.1%, 일부는 남편, 일부는 아내명의로 한다는 31.3%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전통적으로 남편의 명의로만 등기하던 관습이 없어지고, 부부가 공동 또는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가 가정의 부동산, 유가증권, 예금 등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정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재산 총액이 균등하도록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63.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취득건수가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14.5%이었다.

현재 주택이나 자동차의 소유 명의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26.5%였으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41.5%로 높은 편이었다. 내용상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는 남편이 아내보다 3배이상, 자동차

의 경우는 2배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의 자동차 소유도가 주택 소유도 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4) 생활시간·여가생활시간 관리

앞에서 생활시간 관리나 여가생활 관리에 있어서 부부공동의 의사로 결정하는 비율이 70%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가시간의 활용은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사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64.4%). 다음은 자기개발을 위해, 그 밖에 소일, 종교·봉사·사교활동이나 부업 등의 순으로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에 있어서 신세대 가정에서는 가족중심의 생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의 내용을 알아본 결과, 나들이, 자녀와 놀아주기, 대화, 외식, 부모, 친지방문 등의 활동이 많고, 응답자의 40-50 %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가꾸기 활동은 비교적 적었다.

집에서 소일하는 방법은 TV를 보는 경우(48.7%)와 휴식을 하는 경우(40.8%)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독서나 취미활동으로 소일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5% 내외이고 낮잠으로 소일하는 사람들도 10%를 넘고 있었다.

3. 부부관계

1) 배우자 선택조건

배우자 선택조건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5가지를 고르게 하여 조사한 결과, 선택 제 1순위에서 성격 및 가치관을 제일 우선하고 제 2순위에서 건강, 가족관계가 우선적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외모, 대인관계, 직업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학력이나 종교를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9> 배우자 선택조건 순위 (N)

1순위	성격 및 가치관(449)	건강(53)	종교(28)	가족관계(19)
2순위	건강(158)	가족관계(99)	직업(87)	성격 및 가치관(82)
3순위	가족관계(128)	건강(105)	직업(73)	외모(66)
4순위	건강(103)	가족관계(86)	대인관계(84)	외모(58)
5순위	대인관계(88)	외모(73)	가족관계(71)	학력(66)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고정자(198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신세대는 1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성격, 건강을 매우 중요시하고, 외모, 학력보다 가족관계, 직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다. 이는 결혼 후 가족관계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고찰하면, 성격 및 가치관은 한 개인의 인생 및 결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상이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남녀가 같은 성격 및 가치관을 가지기는 어려우나 특히 삶에 대한 상호태도는 쉽게 변화, 발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김혜선·김명자, 1992) 성격 및 가치관이 서로 양립, 수용되지 않는 사람들의 만남은 원만한 결혼생활로 연결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족간의 원만한 인간관계가 가족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관계를 배우자 선택시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2) 부부간 의사소통

부부간 감정표현이 자유롭다고 응답한 경우가 77.3%이고, 감정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2.7%로 나타났다. 부부간 대화시간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다고 응답한 가정이 66.6%로 신세대 가정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원활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별한 때만 대화하는 경우도 27.6%나 되었다.

이정순·박성연(1991)의 연구는 자녀양육기를 거쳐 자녀교육기에 가면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대립관계에서 차츰 대등한 관계로 전환된다고 하였는데, 신세대 가정의 부부도 결혼년수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며, 부부간 의사소통도 자녀가 성장해감에 따라 더욱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여, 부부간 의사소통도 더 자유롭고 대화시간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주부의 취업

주부의 취업에 대한 견해는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 찬성한다 43.9%, 부부 공동합의에 따른다 35.0%로 나타나 대부분의 신세대부부가

주부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는 보이나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을 때라는 제한점이 있고 주부 단독의견보다 공동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주부의 취업에 대한 의견은 성($p<0.001$), 아내직업유무($p<0.01$), 가족구성($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남편쪽보다 아내쪽이 높았으며, 주부의 취업에 무조건 찬성하는 비율은 아내직업이 없는 경우에 높았고, 무조건 찬성하는 비율이 확대가족, 부부가족이 높게 나타났는데,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 찬성한다는 의견은 확대가족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확대가족인 경우는 주부취업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유리한 경우는 부모의 연령이 젊고 건강하여 생활상의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 어려운 경우는 부모가 연로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젊은 부부가 오히려 부모를 시중해야 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주부의 취업에 찬성하는 이유로써 주부의 자아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56.1%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25.4%, 주부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15.8%로 나타나 주로 주부의 자아발전과 가정경제, 그리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취업에 찬성하는 경향이며, 반대 이유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양육문제(80.7%)를 이유로 생각하였다. 주부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성별($p<0.001$), 가족구성($p<0.01$), 가사조력자 유무($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자녀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 대부분(66.6%)이 원하는 자녀수는 2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아들·딸에 대하여 구별하여 원하는 경향이 59.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딸만 있어도 좋다는 비율이 65.8%로 매우 높게 나타나, 신세대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을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고정자(1983)의 미혼남성의 가족의식에 관한 고찰에서와 같은 결과로서 자녀관은 이미 근대적

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

딸만 남은 경우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아내의 직업과 종교, 남편의 종교로 나타났다(표 11). 전문직이나 기타의 직업을 가진 아내들은 가정주부나 사무직을 가진 아내들보다 딸만 있어도 좋다는 의식이 현저히 높았다. 또한 불교신자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독교와 천주교 신자는 딸만 있어도 좋다는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보다 근대적인 자녀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표 10> 원하는 자녀수 및 아들·딸에 대한 구별 N=611

자녀수	%	구 별	%
0	1.0	자녀를 원하지 않음	0.5
1	16.0		
2	66.6	구별하여 원함	59.7
3	13.7		
4	2.0	구별없이 원함	39.8
5	0.7		
계	100.0	계	100.0

<표 11> 딸만 남은 경우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

아들을 낳을 때까지	% N	아내의 직업 % (N)			남편의 종교 % (N)				아내의 종교 % (N)			
		가정주부	사무직	기타	불교	기독교	천주	무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교
모든 노력을 하였다	5.1 31	7.3	3.7		4.4	5.8		6.2	4.1	5.7	3.1	5.1
하다 안되면 그만 두겠다	29.1 177	27.5	34.6	21.6	38.2	17.5	15.5	32.4	33.8	21.0	23.4	33.1
딸만 있어도 좋다	65.8 400	66.1	61.8	78.4	57.4	76.7	84.1	61.4	62.2	73.2	73.4	61.6
계	100.0 608	100.0 (218)	100.0 (191)	100.0 (88)	100.0 (68)	100.0 (120)	100.0 (44)	100.0 (321)	100.0 (74)	100.0 (157)	100.0 (64)	100.0 (255)
		$\chi^2=33.51$ $p=0.006$			$\chi^2=21.55$ $p=0.005$				$\chi^2=28.56$ $p=0.000$			

무자녀의 경우 자녀가 없더라도 그대로 지낸다는 의견이 38.3%로 가장 높았고, 입양한다는 응답도 25.8%로서 근대적인 자녀관을 보였다(표 12). 자녀관은 아내의 학력이 낮을수록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아내들이 더 전통적인 자녀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갖는데 대

한 집착이 낮았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통한 것보다 자신의 사회적 성취동기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를 입양한다면 아들·딸을 구분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별없이 입양하겠다는 응답이 56.8%로 높았고, 나머지는 반반 정도로 아들을 선호하거나 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자녀가 없는 경우에 대한 대응

자녀가 없는 경우	%	N	아내의 학력 %(N)			아내의 성장지 %(N)		
			고졸	대졸	대학원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그대로 지낸다	38.3	227	27.5	42.0	60.3	51.7	32.2	33.0
입양한다	25.8	153	30.6	25.2	14.7	19.4	27.1	32.0
아기를 낳기 위한 모든 시도를 한다	35.9	213	41.9	32.8	25.0	28.9	40.8	35.0
계	100.0	583	100.0 (222)	100.0 (262)	100.0 (68)	100.0 (180)	100.0 (255)	100.0 (103)
			$\chi^2=28.29$ p=0.000			$\chi^2=20.22$ p=0.000		

5. 부모관

신세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역할은 역할본보기(48.6%)로 나타났고, 다음은 심리적 지원(38.3%)이었으며,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12.4%만이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에서 보면 노부모봉양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아들이든 딸이든 형편이 나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8.7%로 높은 편이나, 장남이 해야 한다, 22.8%와 아들이면 누구든지 해야한다 23.4%를 합하면 46.2%로서 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높았고, 딸이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도 안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에서 형성된 가치관이 아직도 지배적인 것을 보이는 것으로 근대적인 자녀관을 가진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역시 1% 정도로 낮게 나타나 부모봉양은 가족이 해야한다는 전통적 가족주의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p<0.001).

노부모봉양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성, 형제서열, 남편의 학력과 직업 등 주로 남편에 관련된 변인이었다.

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신세대 가정의 남편은 장남이 하거나 아들이면 누구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반면, 아내는 아들이든 딸이든 형편이 나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서열에 따른 차이를 보면, 딸이는 장남이 해야 한다에 높은 응답율(40.5%)을 보여 스스로 부모봉양의 책임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10년전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이다(박진숙, 1984).

<표 13> 노부모봉양에 대한 의견

노부모 봉양	%	N	성 %(N)		형제서열 %(N)			
			남	녀	독자	말이	중간	막내
장남	22.8	139	26.7	18.9	24.	40.	13.	17.3
아들이면 누구든지	23.4	143	31.0	16.0	8.	19.	24.	26.9
딸	0.8	5	0.3	1.3			1.	1.5
아들이든 딸이든 형편이 나은 사람	48.7	297	38.9	58.3	60.	36.	55.	51.0
사회복지제도	1.0	6	0.7	1.3		0.	1.	1.0
기타	3.3	20	2.3	4.2	8.	2.	4.	4.5
계	100.0	610	100.0 (303)	100.0 (307)	100.0 (25)	100.0 (195)	100.0 (202)	100.0 (104)
			$\chi^2=34.74$ p=0.000		$\chi^2=49.86$ p=0.000			

표 14에 의하면, 부모와 동거하는데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 32.8%가 부모(시부모)와 이웃에 살고 싶다고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모(시부모)와 동거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29.6%였으며, 어느쪽 부모와도 함께 살고 싶지 않다가 17%, 장인·장모와 이웃에 살고 싶다는 16.8%, 장인·장모(친정부모)와 동거하고 싶은 비율은 3.9%밖에 안 되었다. 부모(시부모)와 동거하거나 이웃에 살고 싶은 사람을 합하면 62.4%로서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족제도하의 가치관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동거보다는 이웃에 살기를 더 원하는 수정된 부모부양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별거보조형의 부양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유대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정도로 적당한 심리적 거리도 유지시킨다고 볼 수 있다(임춘희·정옥분, 1987). 10년전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대한 연구(박진숙, 1984)에서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을 원하는 비율이 68.4%였던 것에 비하면 현재의 신세대들은 부

모부양의 책임은 비슷하게 느끼나 부양하는 방법으로 동거보다는 이웃에 사는 것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데 대한 의견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성과 형제서열이었다. 성별에 따르면, 신세대 가정의 남편들은 친부모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90.4%를 차지한 반면, 아내들은 시댁이든 친정어른 부모와의 동거를 싫어하고 가까이 한다면 이웃에 살고 싶으며, 그 중에도 친정부모와 이웃에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딸의 경우 정서적, 감정적 차원에서 친정부모와 긴밀한 교류를 하지만, 아들은 보다 공식적인 부양의무를 느낀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장선주, 1990).

<표 14> 부모와 동거하는데 대한 의견

응답	% N	성 % (N)		형제서열 % (N)				
		남	녀	독자	말이	중간	막내	
								성
부모(시부모)와 동거	29.6 176	48.8	10.4	36.0	42.1	23.3	17.5	
장인·장모(친정부모)와 동거	3.9 23	0.3	7.4	4.0	1.1	4.7	5.8	
부모(시부모)와 이웃에	32.8 195	42.4	23.2	32.0	34.2	33.2	34.0	
장인·장모(친정부모)와 이웃에	16.8 100	3.0	30.5	16.0	12.1	18.1	23.3	
어느 쪽에도 함께 살고 싶지 않음	17.0 101	5.4	28.5	12.0	10.5	20.7	19.4	
계	100.0 595	100.0 (297)	100.0 (298)	100.0 (25)	100.0 (190)	100.0 (193)	100.0 (103)	
		$\chi^2=22.41$ p=0.000		$\chi^2=36.02$ p=0.000				

형제서열에 있어서는 성별에 의한 것만큼 뚜렷한 차이는 아니나 독자와 말이의 경우 부모(시부모)와 동거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중간과 막내는 어느쪽 부모와도 함께 살고 싶지 않다에 비교적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1985년 한국인구보건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장남부부와 동거하는 노인이 38.4%였고 장남 이외의 아들과 동거하는 노인은 12.4%였다.

표 15에 의하면, 부모(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방문횟수는 전체적으로 1달에 1회 이상 방문이 50.5%로 가장 높았고, 1주에 1회 이상은 24.3%로, 74.8%가 최소한 1달에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를 자주 방문하는 편이었다. 1년에 3회 이상은 21.6%였으며, 1년에 1회 정도 부모를 방문하는 것은 3.5% 정도였다.

부모방문횟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거주지역, 남편의 성장지, 주

택소유상태로 나타났다. 청주 지역에 사는 사람이 서울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남편의 성장지에 따라서는 대도시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부모를 더 자주 방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상태에 따라서는 자가를 소유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부모(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방문횟수

방문횟수	% N	거주지역 % (N)		남편의 성장지 % (N)					주택소유상태 % (N)				
		서울	청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자가	영구임대	월세	천세	편사기타		
												성	형제서열
1주 1회이상	24.3 137	20.2	28.4	20.0	29.9	14.5	34.4	25.5	17.5	14.3			
1달 1회이상	50.5 285	47.9	53.2	61.3	42.9	56.4	48.7	54.2	52.6	47.6			
1년 3회이상	21.6 122	27.0	16.3	16.7	21.0	26.4	13.4	20.8	26.5	33.0			
1년 1회정도	3.5 20	5.0	2.1	2.0	4.2	2.7	3.6	3.4	3.4	4.8			
계	100.0 564	100.0 (282)	100.0 (150)	100.0 (261)	100.0 (110)	100.0 (224)	100.0 (24)	100.0 (291)	100.0 (21)				
		$\chi^2=15.23$ p=0.001		$\chi^2=20.60$ p=0.002			$\chi^2=28.71$ p=0.000						

장인·장모(친정부모)의 방문횟수는 1달에 1회 이상이 44.2%, 1주에 1회 이상은 13.1%로서 57.3%가 최소한 1달에 1회 이상 방문해 친부모(시부모)보다 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부모 방문은 아내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내의 성장지가 대도시일수록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그리고 결혼연수가 짧을수록 더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명절 이외의 휴가를 누구와 같이 보내겠다는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전체적으로 부부와 자녀로 응답한 비율이 45.3%로 가장 높았고, 부부만으로 응답한 비율은 24.6%였으며, 이들을 합하면 69.9%가 핵가족 중심으로 휴가를 즐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휴가를 같이 보내고 싶은 가족에 대하여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내들이 핵가족적인 사고가 높게 나타났고, 확대가족적인 가치관을 보인 사람중에는 남편들은 본가 부모와, 아내들은 친정부모와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현저히 높았다. 친인척과 보내고 싶은 비율은 남편들이 더 많았다.

가족 구성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부만으로 구성된 신세대 가정에서는

부부만(35%)과 부부와 자녀만(39.2%)에 비스하게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신세대 가정에서는 단연 부부와 자녀만(51.8%) 휴가를 보내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핵가족에서 친인척 및 기타에 약간 높은 비율이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부모의 의도가 약간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확대가족에서는 부부만 휴가를 보내고 싶다는 비율이 전체보다 높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같이 생활하므로 휴가는 부부만 보내고 싶은 욕구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결혼년수가 길수록 부모와 자녀만 휴가를 보내고 싶다는 비율이 뚜렷이 높아지고 부부만의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결혼 2-4년까지는 오히려 친인척과 휴가를 보내겠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결혼년수가 길어짐에 따라 자녀를 얻고 양육하면서 부모-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커지고 본인의 부모와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명절 이외의 휴가를 같이 보내고 싶은 가족에 대해서는 남편의 연령과 성장지, 아내의 직업 유무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편 연령에 따른 차이는 결혼년수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부부만 보내고 싶은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부모와 자녀만 보내고 싶은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친인척과 같이 보내고 싶은 비율은 약간 증가하

였다.

남편의 성장지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자란 경우는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하나, 읍면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친인척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혈연을 중시하고 친인척과의 유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아내의 직업 유무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이 없는 경우 부모와 자녀, 직업이 있는 경우 본가부모와 함께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아내가 직업이 있는 경우 자녀양육 문제 등에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유대가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6. 노후생활계획

신세대 가정의 부부는 자신의 노후생활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노후의 활동계획은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를 신세대 가정의 미래 관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노후생활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하여(표 17)는 전체적으로 부부만 지내고 싶다가 71.2%로 현저히 많았으며, 자녀와 함께 지내겠다는 사람은 15.4% 뿐이었다. 부모 봉양에 대하여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였으나, 자신의 노후생활에서는 매우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였다. 30세이상 55세 미만의 청년층 남녀를 대상으로 노후생활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임정빈·조혜영, 1993)에서는 스스로 하겠다는 자립형이 대도

<표 16> 명절 이외의 휴가를 같이 보내고 싶은 가족

휴가를 같이 보내고 싶은 가족	% N	성 % (N)		가족구성 % (N)			결혼년수 % (N)				남편의 연령 % (N)			남편의 성장지 % (N)			아내의 직업유무 % (N)	
		남	녀	부부	핵가족	확대가족	1년미만	1-2년	2-4년	4-5년	29세이하	30-34세	35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부	유
부부만	24.6 150	22.8	26.5	36.0	15.3	31.9	40.7	30.4	21.2	13.9	37.3	22.4	9.4	24.7	26.1	20.0	21.4	28.5
부부와 자녀	45.3 276	40.3	50.3	39.2	51.8	39.1	32.4	42.2	41.6	56.9	37.3	44.8	59.4	44.6	48.1	40.0	53.3	38.4
본가부모와	12.3 75	20.8	3.9	11.6	12.1	14.5	13.0	11.8	13.1	11.9	11.2	13.9	11.5	13.9	10.2	16.5	8.3	15.3
친정부모와	5.4 33	1.3	9.5	7.4	5.2	2.7	7.4	5.6	5.8	4.0	4.1	6.3	3.1	7.2	6.0	0.9	5.8	5.7
친인척 및 기타	12.3 75	14.8	9.8	5.8	15.6	11.8	6.5	9.9	18.3	13.4	10.1	12.6	16.7	9.6	9.5	22.6	11.2	12.1
계	100.0 609	100.0 (303)	100.0 (306)	100.0 (189)	100.0 (307)	100.0 (110)	100.0 (108)	100.0 (161)	100.0 (137)	100.0 (203)	100.0 (169)	100.0 (317)	100.0 (96)	100.0 (166)	100.0 (166)	100.0 (115)	100.0 (276)	100.0 (281)
		$\chi^2=61.90$ p=0.000		$\chi^2=42.29$ p=0.000			$\chi^2=45.86$ p=0.000				$\chi^2=40.66$ p=0.000			$\chi^2=28.20$ p=0.000			$\chi^2=18.74$ p=0.000	

시인 서울의 경우에도 53% 밖에 안되었으며, 안동의 경우는 그 이하였고, 오히려 자녀의존형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신세대 가정의 부부는 자립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4.2%로 미약한 수준이었다.

신세대 가정의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자녀와 함께 노후생활을 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낮고, 부부만 지내겠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남편들보다 진보적인 노후생활관을 보였다.

<표 17> 노후생활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노후생활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 N	성 % (N)		아내의 종교 % (N)			
		남	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교
자녀와 함께	15.4 92	22.4	8.4	18.9	18.1	15.6	11.6
부부만	71.2 425	65.2	77.2	67.6	69.7	76.6	73.2
형제나 친구들과	9.2 55	10.4	8.0	10.8	8.4	3.1	11.2
사회복지시설	4.2 25	2.0	6.4	2.7	3.9	4.7	4.0
계	100.0 597	100.0 (299)	100.0 (298)	100.0 (74)	100.0 (155)	100.0 (64)	100.0 (250)
		$\chi^2=30.14$ p<0.000		$\chi^2=33.62$ p=0.006			

아내의 종교에 따른 차이를 보면, 천주교와 무교의 경우 부부만 지내겠다는 비율이 전체 집단과 불교·기독교 신자보다 높았다. 또한 불교신자들은 사회복지시설을 싫어하고 형제나 친구들과 지내고 싶은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형제나 친구들과 지내고 싶은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천주교 신자들은 형제나 친구들과 지내겠다는 비율이 낮아 개인주의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18에 의하면, 현재 자기개발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복수로 응답하게 한 결과 독서(47.5%), 취미활동(35.5%),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의 감상(35.5%) 및 운동(33.9%)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술문화 활동이나 자원봉사는 별로 하지 않았다. 노후의 활동 계획으로는 여가 및 취미생활이 50.3%로 가장 높았고 사회봉사활동(24.9%), 노인이 할 수 있는 직업(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세대 가정의 아내와 남편들이 현재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않으나 미래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하

겠다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와 고무적이며, 직업을 갖겠다는 비율도 20.8%나 되는 것은 표 17에서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고 본다. 김경숙(1981)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시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학력, 생활수준 등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차를 나타내는 변인이 없었다.

노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현재 준비중인 사람이 56.7%로 반이상이며, 나중에 준비할 예정인 사람(33.4%)까지 합하면 90% 이상이 노후의 경제적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적인 노후생활관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18>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및 노후생활 준비

현재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복수응답)	% N	노후활동계획 (복수응답)	% N
취미활동	20.4 234 (35.5)	직업활동*	17.1 120 (20.8)
예술·문화활동	4.9 56 (9.2)	사회봉사활동	21.7 152 (24.9)
운동	18.0 206 (33.9)	평생교육수강	6.6 46 (7.5)
독서	25.3 289 (47.5)	종교활동	9.4 66 (10.8)
감상(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18.9 216 (35.5)	여가 및 취미생활	43.9 307 (50.3)
자원봉사	1.8 21 (3.5)	기타	1.3 9 (1.5)
기타	2.8 32 (5.3)		
없음	7.7 88 (14.5)		
계	100.0 1142	계	100.0 700

* 노인이 할 수 있는 직업

** () 는 N을 611로 계산한 비율임

7. 가정생활 및 행사에 대한 의식과 태도

1) 전통적 생활방식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의·식·주생활면에 있어서 한국의 전통적 생활방식 및 사고방식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전통적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72.7%로 가장 많았다. 전통적 생활방식에 대한 의견은 가족구성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p<0.01), 확대가족이 전통적 생활방식에 전반적으로 따른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고, 부부가족이 현대적 방식에 따르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성별로는 남편이 아내보다 전통적 생활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아내는 남편보다 현대적 생활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2) 전통적 가정행사의 계승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가정행사를 계승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설(99.5%), 추석(98.3%)이고 다음이 대보름(83.6%)이고 이 행사들은 가정에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비율도 높은 것(설 98.4%, 추석 96.4%, 대보름 67.4%)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가정행사 다음으로 계승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은 서구에서 들어온 크리스마스 행사(82.7%)였는데 한식이나 동지, 삼복 등의 행사 계승에 대한 찬성비율인 50-60%를 상회하고 있고 실제로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치르는 사람들이 68.0%로 나타나 대보름의 실시율 67.4%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전통적 행사

에 대한 반대 비율이 높은 행사로는 입춘(63.0%), 칠석(61.9%), 단오(50.4%) 등이었다.

표 19에 의하면, 설, 추석, 삼복의 전통적 가정행사를 계승하는데 대하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가정행사 계승에 유의차를 보인 변인에 있어서 입춘은 거주지역·성·아내의 성장지, 대보름은 남편의 학력, 한식은 성·남편의 직업, 단오는 거주지역·성·남편의 직업·아내의 성장지, 칠석은 거주지역·성·남편과 아내의 성장지, 동지는 성·아내의 성장지, 크리스마스는 남편과 아내의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성과 아내의 성장지가 가정행사의 계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통적 가정행사에 대해 아내보다는 남편이 계승하기를 더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는 남편들이 행사에 대한 부담이나 고충을 덜 느끼고 아내들은 행사로 인하여 생활이 번거로운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서울지역 거주자보다는 충청지역 거주자가, 대도시보다는 작은 도시나 시골지역에서 성장한 사람이,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적 가정행사를 계승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정영숙외, 199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고,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근대적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9> 가정행사 계승에 영향을 주는 변인

	거주 지역	성	남편 학력	남편 종교	남편 성장지	남편 직업	아내 종교	아내 성장지
입춘	***	***	n.s.	n.s.	n.s.	n.s.	n.s.	**
대보름	n.s.	n.s.	**	n.s.	n.s.	n.s.	n.s.	n.s.
한식	n.s.	***	n.s.	n.s.	n.s.	***	n.s.	n.s.
단오	**	***	n.s.	n.s.	n.s.	***	n.s.	**
칠석	***	***	n.s.	n.s.	**	n.s.	n.s.	***
동지	n.s.	**	n.s.	n.s.	n.s.	n.s.	n.s.	***
크리스마스	n.s.	n.s.	n.s.	***	n.s.	n.s.	***	n.s.

** p < .01, *** p < .001, n.s.는 유의하지 않음

3) 가정의례 행사의 실천실태

혼, 상, 제례나 부모의 회갑·생신, 자녀의 돌·백일을 치르는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가정행사를 기념하는 날짜를 음력으로 기준하는 행사는 부모 생신(67%)과 부모 회갑(61.5%)인 경우가 많았고 다음이 제례(55.6%)였다. 가정행사를 기념하는 기준일을 음력으로 하는 것에 대해 거주지역, 성, 연령, 종교, 성장지에 따라 유의차를 보여 충청지역 거주자가, 남편이, 연령이 많을수록, 불교신자가, 성장지가 작을수록 음력을 사용하는 경향이였다.

행사시 손님 초대는 부모 회갑(85.1%), 혼례(84.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이 돌·백일(77.7%), 상례(61.7%), 부모 생신(55.8%)의 순이고 제례시 손님초대 비율은 매우 낮았다(21.5%). 손님 초대는 남편의 성장지가 작을수록 가정행사시 손님 초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접대는 부모 회갑(87.2%), 혼례(80.4%), 돌·백일(79.7%), 부모 생신(73.4%), 상례(61.3%)의 순으로 손님초대시의 경향과 비슷하여 손님초대시는 대부분 음식접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고 남편과 아내의 성장지가 작을수록 음식을 접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행사시 오신 손님에게 답례하는 것은 혼례시(62.8%)와 부모 회갑(56.2%)인 경우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한복입기에 있어서 부모회갑(79.3%)과 혼례(60.4%)의 경우에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쪽이 혼례나 회갑 때 한복을 입는 비율이 높았다. 가정의례행사 실천에 대한 결과는 선행연구(정영숙외, 1991)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신세대 가정도 이리

한 전통적 가정행사의 실천은 기성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성묘, 별초에 관한 의견

성묘, 별초를 반드시 자손이 해야한다는 의견이 57.0%, 대항할 수 있다 38.4%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묘, 별초에 대해서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명나(1989)의 연구에서 혼례의식은 근대적 가치관과 행동을 나타내고, 제례의식은 비교적 전통적 의식과 행동을 나타내었다는 결과와 비슷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성묘, 별초에 대해서는 거주지역($p < 0.01$), 성($p < 0.001$), 남편의 종교($p < 0.001$), 아내의 학력($p < 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서 반드시 자손이 해야한다는 의견이 서울보다 청주가 높고 서울 거주자가 청주 거주자보다 성묘, 별초에 대한 의미를 약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아내보다 남편이 반드시 자손이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남성보다 여성이, 농민보다 도시인이 더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서병숙, 김윤, 1983; 홍금자, 1990)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편 종교별로는 반드시 자손이 해야한다는 의견이 불교, 무교와 천주교, 기독교의 순으로 낮아지고 불교인들이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영향으로 별초, 성묘에 대해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은 아내들이 성묘, 별초를 대항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에서의 장례식 거행에 대해 응답자의 55.4%가 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나 불편하므로 별도의 장례식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43.8%로 나타났다. 정영숙 등(1991)은 60대 이상의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통적 방법에 의한 장례행사를 치른 경우가 60% 이상이고, 장례를 치른 장소는 80% 이상이 가정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주거공간이 공동화되어 이웃과 밀접한 공간을 점유하게 되므로 신세대

들은 장례도 가정이 아닌 별도의 장소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상의 연구내용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구조에 있어서 82%이상이 핵가족을 형성하면서 신세대 가정이라 해도 가사조력은 거의(80%) 부모에게 의존하였으며 이 중 친정 부모나 처부모보다 본가부모나 시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훨씬 높아(57%)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 부모에게 의존하는 이기적인 부분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신세대의 부모에 대한 의존욕구와 부모세대의 가사조력 의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가족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모세대는 이제 더 이상 손자녀들을 돌보거나 결혼한 자녀들의 가사조력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변화를 신세대들이 알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교육할 필요가 있다.

2) 신세대 가정은 가정생활에서 역할분담과 의사결정, 그리고 부동산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부부공동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신세대가 여가를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보아 가족을 매우 중시하는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아동양육 및 자녀교육, 생계담당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졌지만 가사노동은 여전히 아내가 전담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정관리나 가정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 보다 근대적인 성향인 아내와 더 전통적인 성향인 남편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부의 취업에 대해서도 남편과 아내의 견해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 또한 부부간 갈등요인의 하나로 생각되며 특히 결혼년수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신세대는 결혼시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 성격과 가치관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자유로웠으며, 주부취업에 대해 긍정적이고, 전통적 가부장제에 대해서는 현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40% 이상이 30대 초반에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부모세대가 자녀들의 결혼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신세대들은 예전처럼 차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게 되므로 이러한 점도 가족갈등의 새로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신세대는 원하는 자녀수가 2명이었고 남아선호사상은 감소하였으며, 자녀양육태도는 수용적이었다.

5) 부모역할에 대하여 자녀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모봉양과 동거에 대하여는 책임의식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자신의 노후문제에 대해서는 자녀로부터 독립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봉양에 있어 아들과 딸 중 형편이 나은 사람이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며, 부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것보다 가까운 이웃에서 사는 것을 원하고 있다.

부모봉양에 대해서는 아들·딸 관계없이 형편이 나은 사람이 해야한다는 생각이 높았지만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하려는 생각은 극히 적게 나타났다. 앞으로 핵가족하에서, 주부의 취업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몸이 불편한 노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그간 양로원과 같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시설 등을 강화하여 이러한 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건강한 노인이라 하더라도 부모와의 동거보다는 가까운 이웃에 살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선호될 것이며, 3세

대 동거주택보다 이를 위한 주택설계나 주택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신세대 부부는 노후에도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동거하지 않고 부부만 지내기를 원하므로 자아개발 및 노후활동으로 충실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노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보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6) 신세대의 생활방식에 있어서, 의식은 현대적이거나 실천적 생활면을 통해서 볼 때 기성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계승해야 한다는 가정행사는 설, 추석, 대보름, 크리스마스이고, 손님초대와 음식접대를 하는 가정행사는 부모회갑, 혼례이고 다음으로 돌, 백일, 상례, 부모생신의 순이었다. 그리고 성묘와 벌초는 반드시 자손이 해야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가정이 아닌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현대적 가치관도 나타내었다. 전통적 가정행사의 실천은 기성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설, 추석, 대보름과 같은 우리 고유의 명절은 그 유래와 전통놀이, 관습 등을 바로 알리고 더 철저하게 우리의 전통을 유지,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7) 신세대 가정의 가족가치관에 있어서 가정자원관리관, 부부관, 자녀관, 부모관, 미래관, 가정생활 및 행사에 대한 의식과 태도면의 여러 항목에 관련된 변인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성이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구성형태·결혼년수이었고, 거주지역, 아내의 직업유무·학력·수입·성장지, 남편의 연령·성장지이다.

2. 제언

1) 기성세대는 사회변화에 따른 신세대의 현대적 가족 가치관을 이해하여 두세대간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바람직한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신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신세대의 가족가치관에 성별 차이가 큰 것은 부부관계의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부부공동참여의 방법으로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 즉 가정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교육기회의 확대으로써 인격성숙을 유도하고 배우자 상호간에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4) 신세대의 가족가치관에 거주지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가족가치관 형성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통적인 사고의식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족갈등을 감소시키고,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고정자, 미혼 남성의 가족의식에 관한 고찰 -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983.

권미화, 미혼 신세대 소비자의 여가 선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2.

권오주,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9.

김경숙, 도시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시 성인층을 대상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0.

김경신,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가치관과 가치 전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3, 1987.

김경신, 부모와 대학생 자녀간의 가치전달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1990.

김경원,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89.

김명자,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4, 1985.

김혜선·김 명자, 배우자 선택과정과 결혼 적응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92.

박진숙,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서울과 경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2-3, 1984.

박혜인, 한국여성의 가족주의가치 분석 -대구

·경북지역의 도시·농촌 비교-,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 17, 1989.

박혜인·김 은미, 여성취업에 대한 기혼 남녀의 가치관 비교, 계명대 과학논집 14, 1988.

서병숙·김 윤,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과 안동지역의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983.

이성희·김태현,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간 가족역할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989.

이정순·박성연,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991.

임춘희·정옥분, 분가한 도시 장남 부부의 부양 의식 유형-세대간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8-1, 1988.

장선주, 노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생활 감정교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정영숙외 3인, 가정생활문화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 연구소, 1991.

정현숙, 한국의 신세대문화와 복식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지,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4.

조은정, 신세대 소비자의 주거가치와 주거선호, 서울대 석사논문, 1994.

한국일보, 신세대 문화 왜곡, 과대포장, 1994. 3. 26.

한국섬유, 1994. 6. 6.

한겨레신문, 실제 모호한 논쟁의 대상 신세대